“유느님을 잡아라”

‘무한도전’ 사라진 예능 판 혼전 예상
토요예능 유재석 카드 잡기 혈투
‘무도’ 시즌2 가능성에 섭외 힘들어
5월 넷플릭스 ‘범인은…’ 촬영 완료

‘무한도전’이 끝난다. 유재석을 잡기 위한 방송가 혈투가 시작된다.

MBC TV ‘무한도전’과 13년을 동고동락한 유재석이 오는 31일 ‘무한도전’ 종영으로 갑자기 한가(?)해졌다. 매주 꼬박 MBC TV ‘무한도전’을 촬영하면서 SBS TV ‘런닝맨’과 KBS 2TV ‘해피투게더’를 병행해온 그의 스케줄에 갑자기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이다. 현재는 JTBC ‘슈가맨2’까지 촬영하고 있지만, 품이 많이 드는 버라이어티 예능이자 ‘국민예능’인 ‘무한도전’이 끝나는 것은 유재석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연히 여기저기서 유재석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무한도전’이 사라진 토요일 오후 시간대 예능에 유재석을 내세우려는 시도가 꿈틀댄다. 그동안은 ‘무한도전’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토요 예능 유재석 카드’가 시장에 나온 것이다.

◇ 5월 넷플릭스 ‘범인은 바로 너!’로 버라이어티 예능 이어가

‘무한도전’은 막을 내리지만 유재석의 버라이어티 예능은 계속된다. 플랫폼이 달라질 뿐이고, 무대는 더욱 넓어진다.

유재석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작하는 첫번째 예능 ‘범인은 바로 너!’를 통해 오는 5월 세계시장에 진출한다.

‘무한도전’, ‘런닝맨’과 같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이미 촬영을 마쳤고 현재 후반 작업 진행 중이다. 유재석을 비롯해 이광수, 박민영, 안재욱, 김종민, 엑소 세훈, 구구단 김세정이 출연한다. 출연진이 매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버라이어티 게임쇼로 총 10회로 제작된다.

유재석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8일 “촬영을 일찌감치 마쳤고 후반작업이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계속 후반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며 “5월에 서비스되는 것으로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1991년 데뷔 이래 20여년 지상파 3사 프로그램에만 출연하던 유재석은 2015년 8월 JTBC ‘슈가맨’을 통해 처음으로 지상파가 아닌 채널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이 아닌 넷플릭스를 선택하며 아예 플랫폼의 변화를 추구했다. 세계 190개국, 1억900만 가입자에게 서비스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MC’ 유재석은 세계 시청자를 공략하게 된다.

‘무한도전’이 종영하는 충격이 크지만, 더 큰 무대와 새로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방송의 제약을 벗어난 버라이어티 예능은 좀 더 자유분방하게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어 유재석이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으로 ‘최고 MC’ 20년

유재석은 2000년대부터 20년 가까이 ‘국내 최고 MC’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그와 ‘투 톱’ 체제를 유지했던 강호동이 세금 문제로 ‘강등’된 이후에도 유재석은 변함없이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의 방송 프로그램 회당 출연료는 1천500만원 안팎으로 예능계에서 독보적이다. 지상파보다 케이블 출연료가 높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출연료는 그 몇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스캔들 하나 없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제작진 못지않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최고 MC’ 자리를 지켜왔다. 제작진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녹화 시간에 맞춰 와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맡은 프로그램에는 제작진처럼 열과 성을 쏟아붓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이제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그보다 나이 어린 제작진 입장에서는 유재석이 부담스러운 ‘공룡’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의 열정이 ‘월권’이나 ‘간섭’으로 비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방송가에서는 여전히 이구동성 “유재석만 한 MC가 없다”고 말한다. 그만큼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중에게 변함없이 큰 지지를 받고 있어 방송가에서 ‘유재석 카드’는 ‘흥행 보증수표’와 다름없다. 이로 인해 ‘무한도전’ 종영으로 공백이 생긴 유재석을 잡기 위해 방송사들은 없던 기획도 부랴부랴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금이 아니면 유재석을 언제 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그동안은 유재석이 버라이어티 예능을 두 개나 하고 있고, 둘 다 주말 예능이라 유재석에 걸맞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유재석 스케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무한도전’이 종영하니 새로운 기획안들이 그에게 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재석이 지금까지 들어온 기획안들을 다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 ‘무한도전’ 시즌2 가능성도 열어둬…“휴지기 필요했을 것”

‘무한도전’ 시즌2 가능성도 열려 있다. MBC가 ‘무한도전’이 시즌2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고, 충성스러운 팬들은 물론이고 유재석을 비롯해 ‘무한도전’ 멤버들도 ‘무한도전’의 종영을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방송사 PD는 “13년 정도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연출자와 멤버들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아마 애증의 관계가 됐을 것”이라며 “연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PD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그가 6개월간 연수를 다녀온 뒤 ‘무한도전’ 시즌2를 기획한다면 멤버들은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다.

유재석이 현재 새로운 러브콜들을 거절하는 것 역시 ‘무한도전’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섣불리 토요일 오후 예능을 했다가는 ‘무한도전’ 시즌2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FNC 관계자는 “이번주까지 ‘무한도전’ 촬영이 있다”면서 “31일 마지막 방송까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안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하남 마음 설레게하는 예쁜 누나로 돌아왔어요”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2000년 낭랑 18세에 데뷔한 앳된 소녀는 어느새 희로애락을 경험한 36세 ‘누나’가 됐다.

지난 18년 방송과 영화를 넘나들며 ‘멜로퀸’ 타이틀을 유지해왔던 손예진이 처음으로 ‘누나’가 돼 ‘동생’과 사랑을 펼친다. 그는 이번에도 성공할 것인가.

JTBC가 오는 30일 밤 10시45분 첫선을 보이는 금토극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손예진과 정해인(30)이 호흡을 맞추는 연상녀-연하남 커플의 이야기다.

제작진은 28일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써내려가게 될 그들만의 평전”이라며 “우리는 진짜 해본 적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소개했다.

손예진이 커피회사 가맹운영팀 대리 윤진아를 맡았다. 프로페셔널한 업무능력으로 회사의 신임을 받는 직장여성이지만, 사생활은 반복되는 연애 실패로 우울하다.

윤진아는 어느날 남동생의 절친이자, 자신의 친구 경선의 동생 서준희를 오랜만에 본 순간 가슴이 설렌다. 친동생과도 같았던 준희인데, 그의 환한 미소를 본 순간 마음이 녹아 내렸다.

손예진이 연하의 남자 배우와 호흡을 맞추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10년 MBC TV ‘개인의 취향’에서는 이민호(31)와 멜로를 찍었다. 그러나 그때는 극중 ‘누나’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가 극중에서도 ‘누나’가 됐다는 점이 방점을 찍는다.

손예진은 “누나이고, 애써 누나인 척도 하지만 준희에게 그냥 더 어리광부리고 싶어하는 진아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만 활동하다 ‘상어’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를 찍는 그는 “드라마가 참 힘든 작업이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안판석 PD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했다”면서 “안 PD님과 10년 뒤에 봐도 부끄럽지 않은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들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떠오르는 신예 정해인이 게임회사 아트 디렉터 서준희를 맡았다.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다 본사의 호출로 3년 만에 귀국한 서준희는 누나로 알고 지냈던 윤진아를 다시 만나자 ‘원래 저렇게 예뻤었나’ 하는 마음이 들며 진아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정해인은 “첫 멜로인데 손예진 누나와 함께 하게 돼 꿈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손예진에 대해 “너무 아름다우셔서 처음에는 잘 쳐다보지도 못했다”며 “포장마차 신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스킨십을 해야 했는데 너무 떨려서 눈을 못 보겠더라”며 웃었다.

장소연이 서준희의 누나 서경선을 맡았고, 서정연과 박혁권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안판석 PD는 “극적 리얼리티에 있어서 손예진과 정해인의 ‘케미’는 진짜 연인”이라고 자신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백미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재) 55 UHD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사랑의 가족		00 12 MBC 뉴스 20 데릴남편 오작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1	20 공룡 메카드 50 안녕! 괴발개발 시즌2	00 이웃집 찰스(재)		55 닥터 365
2	20 팔도밥상(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3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천상의 컬렉션(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에어로버 30 하하랜드 2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 〈바른미래당〉	00 누가 누가 잘하나	35 2018 지방선거 정강정책연설 〈더불어민주당〉 55 뉴스콘서트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터닝메카드 R 30 주간연예수첩	50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속보이는TV 인사이드	55 할머니네 똥강아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50 KBS 스페셜			
10	45 UHD 숨터 50 KBS 뉴스라인	00 추리의 여왕 시즌2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30 사이언스 오디세이 신비한 인체의 비밀	10 해피투게더	10 오지의 마법사 스페셜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20 UHD 이미지 다큐 10부작 음악의 정원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2018 지구촌어린이돕기 희망더하기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메이드 인 북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매혹의 보물섬 인도네시아 4부 원시 부족의 땅 수마트라〉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랄랄라 뿌우
09:00 뚝딱맨
09:15 두다다쿵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사리 차돌박이찌개와 양배추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13:40 다큐 시선 〈아동학대의 늪, 대물림〉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사이언스타 Q 〈공기 대포로 드라마를 찍어라〉
19:30 EBS 뉴스
19:50 엄마를 찾지마(재)
20:40 세계테마기행 〈심장이 뛴다, 페루 4부 잉카의 꿈, 콘도르〉
21:30 한국기행 〈여기는 처음이지요 4부 산모퉁이를 돌면〉
21:50 다큐 시선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까?〉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한국 재즈의 오늘〉
24:05 지식채널e
24: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9일(음 2월 13일 庚申)

子 — 48년생 다방면으로 고루 안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60년생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판세이니라. 72년생 처음부터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84년생 망설인다면 분명히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83, 41

丑 — 49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움을 접하는 법이다. 61년생 파격적인 변화는 향후의 추진력이 될 것이다. 73년생 좋은 일이 있을 때 마도 함께하는 판세이다. 85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53, 94

寅 — 50년생 미리 호언장담하는 것은 자승자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면심 하라. 62년생 우려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74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나 진행하기에는 이르다. 86년생 대화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 47, 10

卯 — 51년생 여러 사람들과 관련 되다보면 복잡해지기만 하니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63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75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87년생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12

辰 — 52년생 시간을 아끼며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할 때이다. 64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76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88년생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58, 36

巳 — 53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65년생 얕잡아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77년생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89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6, 09

午 — 42년생 단순히 여긴다면 복병을 만나게 된다. 54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6년생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78년생 자중하며 살피는 것이 유익하다. 90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역동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0, 52

未 — 43년생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 55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67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79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아니다. 91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삭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행운의 숫자 : 09, 44

申 — 44년생 민첩한 순발력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56년생 곧 이어서 밀어 닥칠 판국에 대응할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8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80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행운의 숫자 : 72, 32

酉 — 45년생 또 다른 차원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57년생 흥기가 왕성하니 오래 지속하는 것이 합당하다. 69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81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7, 42

戌 — 46년생 당시의 현장에서 의사 표시가 분명해야만 한다. 5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 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70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82년생 싫어한다면 굳이 행할 필요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63, 14

亥 — 47년생 지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59년생 생소한 것에는 조심해야 하느니라. 71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83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2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